

1. 개 요

1. 일시 : 2015년 10월 2일(금) 14:00~16:00

2. 장소 : KIEP 서울사무소 비즈니스센터

3. 참석자

▣ 발표자 : 이선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전 인도네시아 대사)

▣ 참석자 : 총 11명(발표자 포함)

KIEP 소속 (7명)

오윤아,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팀장

곽성일,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정재완,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금,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이,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김제국,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안선하,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위촉 외부전문가 (2명)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기획홍보실 실장

함정한, 외교부 동남아과 과장

비위촉 외부전문가 (1명)

최병석,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사무관

4. 제목: 중국 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주변국 대응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중국이 해상 실크로드 전략 발표이후, 주변국인 동남아, 일본, 인도의 주요 대응 및 관련 정책은 아래와 같음.
 - (동남아)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 중 해상 실크로드 지지를 공식으로 발표한 국가는 아직 없음.
 - 단 AIIB 및 남중국해 협력 사업 등 개별 사업별로 참가 및 지지 의사를 표현한 일부 동남아 국가는 있음.
 - (일본) 아베 정부는 대 아세안 경제진출을 강화하고, 대 아세안 군사 및 안보 지원을 개시하였음.
 - 일본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인프라 건설에 1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2016부터 3년간 메콩유역 개발에 6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이와 더불어 일본은 인도·호주·미국과 연계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인도) 모디 총리는 인도-태평양 해양협력(Indo-Pacific maritime cooperation) 정책을 통해 남아시아에서 인도의 영향력 확대와 중국 세력 확대 견제를 꾀하고 있음.
 - 또한 일본·중국·미국과 개별적으로 활발한 외교전을 통해 각종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2) 토론내용

(1) 해상실크로드 전략의 구체성 관련 논의

- ☐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전략과 이를 포괄하는 '일대일로'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전에 있던 계획을 재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함.
- 하지만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에 대한 원칙, 발전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태도로 구체화시키는 향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대일로' 전략은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함.

(2) 동남아시아에서 경제거점 확보를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 양상 관련 논의

- ☐ 중국 정부의 1,000억 달러 규모의 AIIB 설립 계획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1,100억 달러의 아시아 건설 기금 계획을 발표하였음.
- ☐ 동남아시아 국가의 철도, 항만,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수주를 놓고 중·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간 150km 철도 건설수주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였으며, 결국 일본의 1/3에 불과한 건설단가, 사업비 전액융자, 정부의 채무보증 불필요 등의 조건을 제시한 중국이 수주하였음.
- ☐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은 지역적 대응(아세안 차원)과 개별국가 대응이 혼재되어 있으며 국가이익과 실리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보임.
- 동남아 국가들은 역내 중국주도 인프라 투자 확대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현실적 대안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진출을 반대할 이

유는 없음.

(3) 동남아를 둘러싼 강대국의 경쟁심화 양상이 동남아 및 주변국에 주는 영향 관련 논의

- ☐ 동남아시아 국가 입장에서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경쟁심화 양상이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동남아 국가들의 보다 신중한 외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또한,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양상은 동남아 내 한국 입지를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깊게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 경쟁하여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시장성장에 따른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음

(4) ‘일대일로’ 추진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증진 가능성 관련 논의

- ☐ 최근 중국 정부가 중앙아시아를 수시 방문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5개국도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중앙아시아 5개국은 총 인구 6,600만 명, 총 GDP 2,960억 달러의 작은 경제규모를 갖고 있지만, 중국입장에서는 ‘일대’의 관문인 중앙아시아에서 위치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반중정서가 높은 편이긴 하나, 유럽과의 연결성 개선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인프라 건설과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5) ‘일대일로’ 추진으로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증진 기대 관련 논의

- ‘일대일로’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증진될 가능성이 존재함.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있어서 러시아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함.
-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달갑지 않을 수 있으나, 서구의 각종 제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및 외교적 고립으로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함께 개발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러시아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국, 유럽과 함께 협업한다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끝/